

자동차

Car



아우디 'R8'



현대 '제네시스'

야심찬 신차, 그들이 달려온다

현대 최고급 '제네시스'·기아 SUV 'HM' 등

국산차 업계 신기술 앞세워 '가을대전' 예고

기아 경차 '모닝'

판매 25% 증가

기아자동차의 '모닝'이 경차 기준 확대 등의 영향으로 올해 판매실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기아차에 따르면 '모닝'은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1만4천584대가 판매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1만1천667



대)에 비해 25.0% 증가했다.

이는 '모닝'이 내년부터 경차로 포함되면서 특별소비세, 취득세, 등록세 등이 면제되고 고속도로 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50%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내년부터 경차 적용기준은 기존 배기량 800cc미만에서 1천cc미만으로 변경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신차의 계절인 가을이 다가오면서 국내 자동차시장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산·수입차업계 모두 하반기 신차 출시를 통해 본격적인 시장 공략을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GM대우가 1일 2인승 스포츠카 'G2X 로드스터'의 국내 시판에 나선 것을 필두로 국산·수입차업계의 신차가 대거 쏟아질 전망이다.

국산차업계는 각 사가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야심작' 출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표 '작품'으로는 현대자동차의 럭셔리 세단인 '제네시스(프로젝트명 BH)'나 기아자동차의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HM(프로젝트명)' 등이 꼽힌다.

수입차업체들은 경제성을 고려한 친환경 디젤차량 출시가 잇따라 예정돼 있다. 아우디의 스포츠카 'R8'이나 포르쉐의 '뉴 911 터보 카브리올레' 등 마니아들을 위한 차량들도 국내시장에 선보인다.

◇국산차 업계 '야심작'으로 승부=현대차가 12월 출시하는 프리미엄 세단 '제네시스'는 올해 국내 신차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으는 모델이다. 현대차가 BMW 5시리즈나 벤츠 E클래스 등 프리미엄 수입차를 겨냥해 출시한 차종으로, 럭셔리처럼 별도의 프리미엄 브랜드를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제네시스'는 해외에서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 미국 자동차 전문지 '모터트렌드'는 8월호에서 향후 2년 내 출시되는 모델 가운데 '가장 기대되는 10개 모델'에 제네시스를 포함시켰다. 또 미국 자동차전문 사이트 '오토블로그'는 현대차가 '제네시스'를 발판으로 프리미엄 브랜드로 도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값은 오픈러스와 에쿠스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또 11월께 소나타 부분변경 모델을 시판한다. 2004년 8월 NF소나타 출시 이후 3년여 만에 나오는 신모델이다.

기아차도 12월께 고급 SUV인 'HM'을 내놓는다. 북미와 유럽시장에서 '렉서스 RX 350', 'BMW X5', 벤츠 'M클래스'와 경쟁하기 위해 만든 첫 대형 SUV다.

3년여의 개발 기간을 거쳐 기아차가 새롭게 개발한 플랫폼과 다양한 신기술이 담길 예정이어서 기아차의 새 아이콘으로 부상하고 있다. V6 3.0 디젤 S엔진을 탑재하고 국내 최초로 독일 ZF사의 6단 자동변속기를 달았다.

르노삼성엔 소형 SUV인 'H-45'로 시장 개척에 나선다. 르노삼성의 첫 SUV이자 첫 디젤 차량이다. 그동안 르노삼성은 세단인 SM 3·5·7 등 3개 모델이 전부여서 라인업이 너무 단조로웠다. 'H-45'는 모델 다각화를 위한 출발점이 되는 모델이다.



수입차, 경제성 고려 '친환경 디젤'로 승부수

아우디 스포츠카 'R8' 등 고성능 차량 출시도

이밖에 GM대우는 2인승 스포츠카 'G2X 로드스터'의 시판에 이어 오는 10월에는 칼로스 후속의 소형 해치백의 국내 판매에 들어간다.

◇수입차는 '경제형' 고성능차로 시장 공략=고유가 추세와 맞물려 기름값을 절약할 수 있는 디젤 또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들여오는 곳이 많다.

GM코리아는 10월께 중형 세단 'BLS'의 디젤 모델을 선보이고 짧은층 공략에 나선다. 캐딜락이 처음으로 선보인 디젤 차량으로, 신형 1.9TiD 터보차저 엔진과 6단 자동변속기를 장착해 최고출력이 150마력에 달한다.

제규어 랜드로버코리아도 랜드로버의 콤팩트 프리미엄 SUV인 '올 뉴 프리랜더2'의 디젤모델을 9월 말 국내에 소개한다. 기존 프리랜더를 9년 만에 풀체인지한 모델로, 2.2ℓ 터보 디젤 엔진(최대출력 160마력)을 탑재했다.

크라이슬러는 지난 3월 선보인 '뉴 세브링'의 디젤 모델을 10월께 시판할 예정이다. 2.0ℓ 디젤 엔진을 얹어 연비가 뛰어나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도요타는 고급 세단인 LS모델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얹은 'LS600h'를 10월께 국내에 선보인다. 5.0ℓ 휘발유 엔진에 전기 모터를 접목시킨 차량으로, 최고출력이 445마력에 달한다.

고성능 차량 출시도 잇따를 예정이다. 하반기 출시 예정인 아우디 스포츠카 'R8'은 최고 출력 420마력, 최고시속 301km에 달한다. 4200cc V8 FSI 엔진을 장착해 제로백(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4.6초에 불과하다.

포르쉐가 오는 8일 공개하는 '뉴 911 터보 카브리올레'는 스포츠카의 주행 성능과 컨버터블의 즐거움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600cc급 6기통 '박스' 엔진이 최대 480마력을 뿜어낸다. 수동 변속기 모델의 제로백은 4초, 최고 속도는 시속 310km에 달한다.

폭스바겐코리아는 '골프 GT 스포트 TDI'와 파사트 'V6 4모션(4Motion)'을 준비 중이다. 9월 출시될 골프 'GT 스포트 TDI'는 인기 해치백인 골프의 고성능 버전이며, 파사트 'V6 4모션'은 중형 세단 파사트에 4륜구동 기술인 4모션을 적용했다.

한국닛산은 9월 초 '뉴 인피니티 G37 쿠페'를 선보인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사진 위로부터 기아 'HM', 포르쉐 '뉴 911 터보 카브리올레', GM대우 'G2X 로드스터', 캐딜락 'BLS'

공인중개사 최종문제풀이

매일 40분씩 모의시험 문제풀이로 통해 최종 합격 성공

9.3

광주고시학원

문의 ☎ 227-8000

충무로점 ☎ 871-0002

한자한문지도사 자격모집

1. 접수장소

2. 접수기간

3. 접수대상

4. 접수방법

5. 접수비용

6. 합격자발령

7. 시험장소 및 접수처

광주이적대학교 평생교육원

TEL: 945-2284, 2285, 945-2114-4180

교원임용고시의 모든것!

국내영교육학 문제풀이특강

국내영 교육학, 초등교육, 전공수학, 임용시험유아교육, 심리및 건강국어, 교육이론, 교육철학

www.naeyoung.com

529-0090